

KDMT1200045421

738.11
7 253 2
40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허벅을 응용한 화병 제작에 관한 연구

- Study on production based on

Her-burk Che-ju Do -

제 출 자 : 姜 炅 林

지도교수 : 朴 鍾 勳

2000

陶 藝 學 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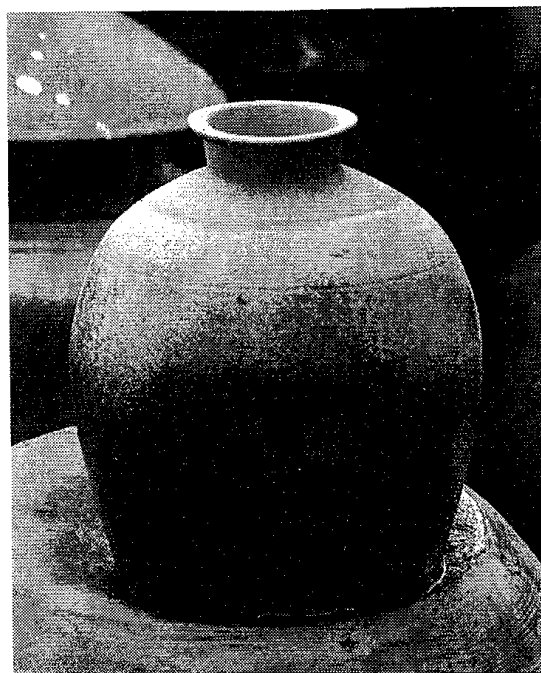
陶 藝 專 攻

檀國大學校 大學院

〈대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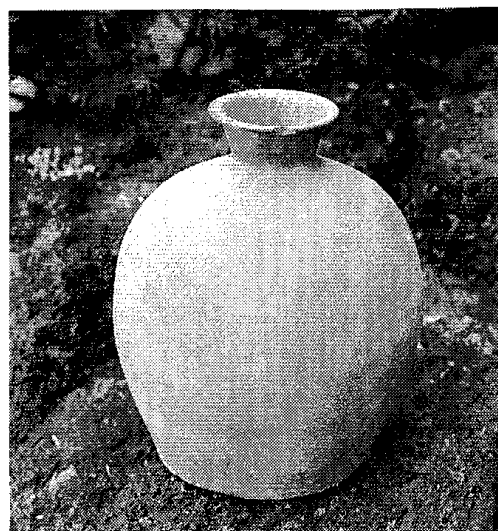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사진 25>

III. 시작품의 Design 계획과 제작과정

1. 시작품의 Design 계획

화병은 꽃을 더욱 아름답게 함은 물론 꽃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실내 공간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생활 용기인 ‘허벅’의 형태를 응용하는데 있어서 제주도 전통 용기 고유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형태나 문양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을 피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화병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꽃을 꽃기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제주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화병형태에 응용하기 위하여 견학과 문헌을 통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유물자료를 고찰하여 꽃을 꽃는 화병으로서의 기능적인 요소와 허벅형태의 장식적인 요소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문양은 상감기법을 응용하였으며, 문양에는 제주도 허벅에서 나타나는 빗살 모양, 음각문양을 단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시작품의 제작 과정

본 연구의 시작품 제작은 물레 성형을 이용한 제작으로서 소지의 선택과 조합을 시작으로 성형, 굽각기, 표면장식, 건조, 시유, 소성순으로 제작하였다.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지의

선택과 상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시작품에 사용된 소지는 제주도의 옹기 흙으로서 제주도 내에서 가장 양질의 점토가 생산되는 한경면 조수리 일대의 논에서 30cm정도 표면의 흙을 걷어내고 난 후의 흙을 이용하였다. 그러한 흙이 기물을 소성했을 때 발색이 좋다고 한다. 이때, 흙에는 검푸른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약토 성분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약토란 낙엽이 몇 백년 동안 썩어 생긴 흙으로 옹기 제작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약과 함께 기면의 발색을 돕구는 잿물로 사용된다.

이렇게 채취한 흙은 분쇄기에 넣어 곱게 빻고, 토런기로 두세차례 뽑은 후 사용한다.

1) 제주도의 점토

5차례의 화산 분출에 의해 형성된 제주도 토양의 약 70%는 전형적인 화산 회토의 특성을, 나머지 30%는 비화산회토의 특성을 각각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생화산들의 폭발 시기와 고도에 따른 기후, 시생, 지형, 생성년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화산회에서 유래된 토양일지라도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토의 약 70%는 철분 성분이 많이 함유된 화산회토여서 도자기를 제작하는데 적당하지 않지만, 철분성분의 함량이 적어서 토기와 도기를 제작하는데 적합한 양질의 점토가 옹기가마 현존지역인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 분포하며 또한 북제주군애월읍 광령리, 제주시 일도지구(광양일대)에 점토가 분포했다. 그리고 옹기가마터 지역인

제주시 도남동·노형동과 동부지역으로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일대에도 점토가 분포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 지역은 약간의 해발 고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산간 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비화산회토이고 토색별 분류에 의하면 암갈색토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지역 점토의 산화철(Fe_2O_3)함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고 규석(실리카, SiO_2)함량은 높았으며, 알루미나(Al_2O_3)함량이 낮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이들 지역의 점토

표1. 제주 점토 분석 결과

성분 \ 지역	신평리	조수리	광령리	일도지구
SiO_2	63.59	61.67	59.86	61.73
Al_2O_3	16.81	14.77	18.52	16.30
Fe_2O_3	8.03	7.69	6.34	8.03
TiO_2	1.24	1.24	1.38	1.35
MnO	0.01	0.09	0.01	0.13
CaO	0.28	0.54	0.31	0.46
MgO	0.76	0.99	0.87	1.37
K_2O	1.61	1.86	1.47	2.12
Na_2O	0.75	0.96	0.66	1.66
P_2O	0.04	0.11	0.99	0.10
L.O.I	7.11	10.16	10.53	6.89
Total	100.03	100.08	100.04	100.08

시료들은 함철고토광물이 많이 함유된 현무암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조면암과 같은 중성화산암에서 부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분석 결과 표는 다음과 같다.¹¹⁾

제주도의 이러한 토질 환경 여건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부 지역에 많은 가마를 형성하게 했고, 제주도에서 가마가 위치했던 곳은 비화산회토 지역이며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구억리,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조수리 지역에 그 가마가 현존하고 있다.

2) 성 형

본 작품은 성형 방법으로 물레에 의한 성형을 하였는데, 허벅의 형태를 응용하는데 있어서, 꽃을 꽃기에 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구연부를 확대하였고 다양한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 몸통과 굽의 높이와 너비에 변화를 주었다.

3) 건 조

건조란 성형된 기물의 수분 함량을 줄여서 운반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여 소성시 급격한 수분의 증발에 따른 변형과 균열 등의 파손을 방지하여 소성 과정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제주도 옹기흙은 한번 건조되면 돌과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굽각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제주도 옹기 흙이 논이나 밭에서 채취한 2차점토로서 입자가 치밀하며 밀도가 높고 점력이 높아 건조하였을 시 다른 흙에 비해 건조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굽각는 것이 중요하다.

4) 표면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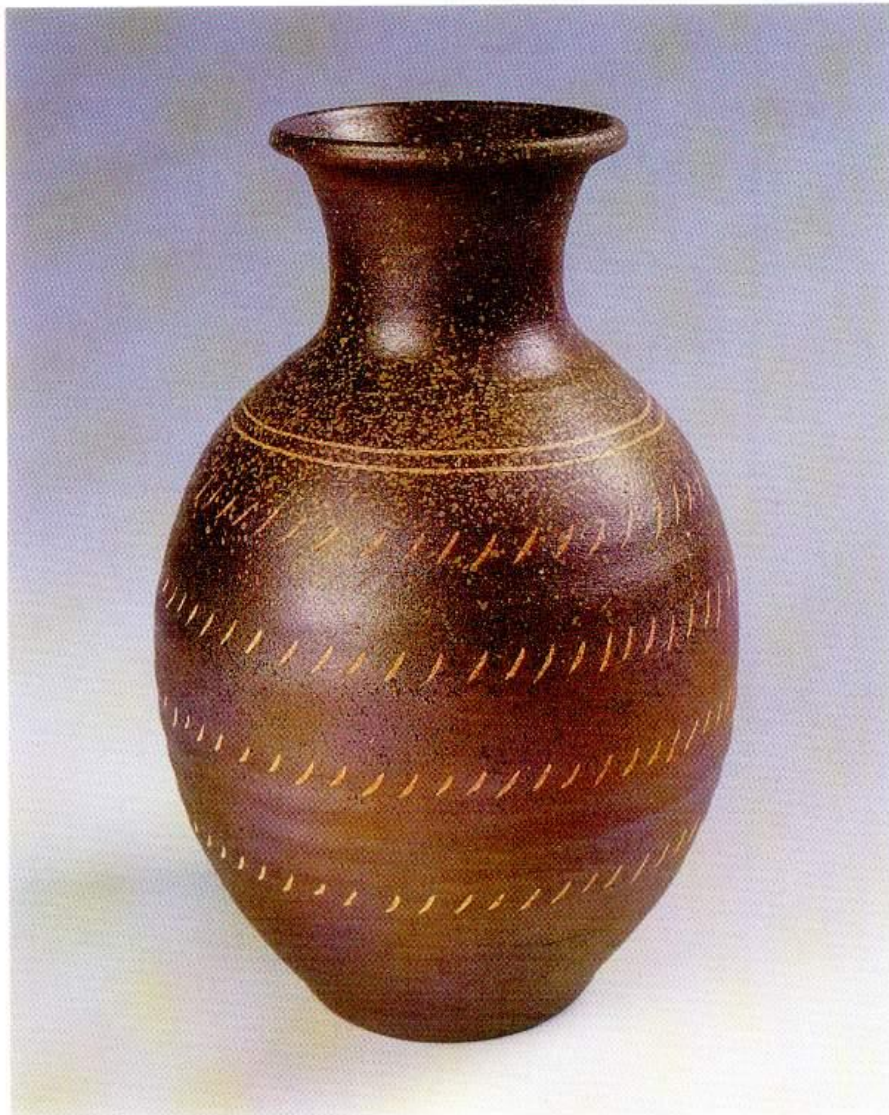
본래 허벅의 표면 장식은 다른 지방의 옹기에 비해 자유 분방하거

11) 강동우, 「메스바우어 효과에 의한 제주지역 찰흙에 함유된 Fe의 자기적 특성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7

3. 시작품 및 작품 설명

[시작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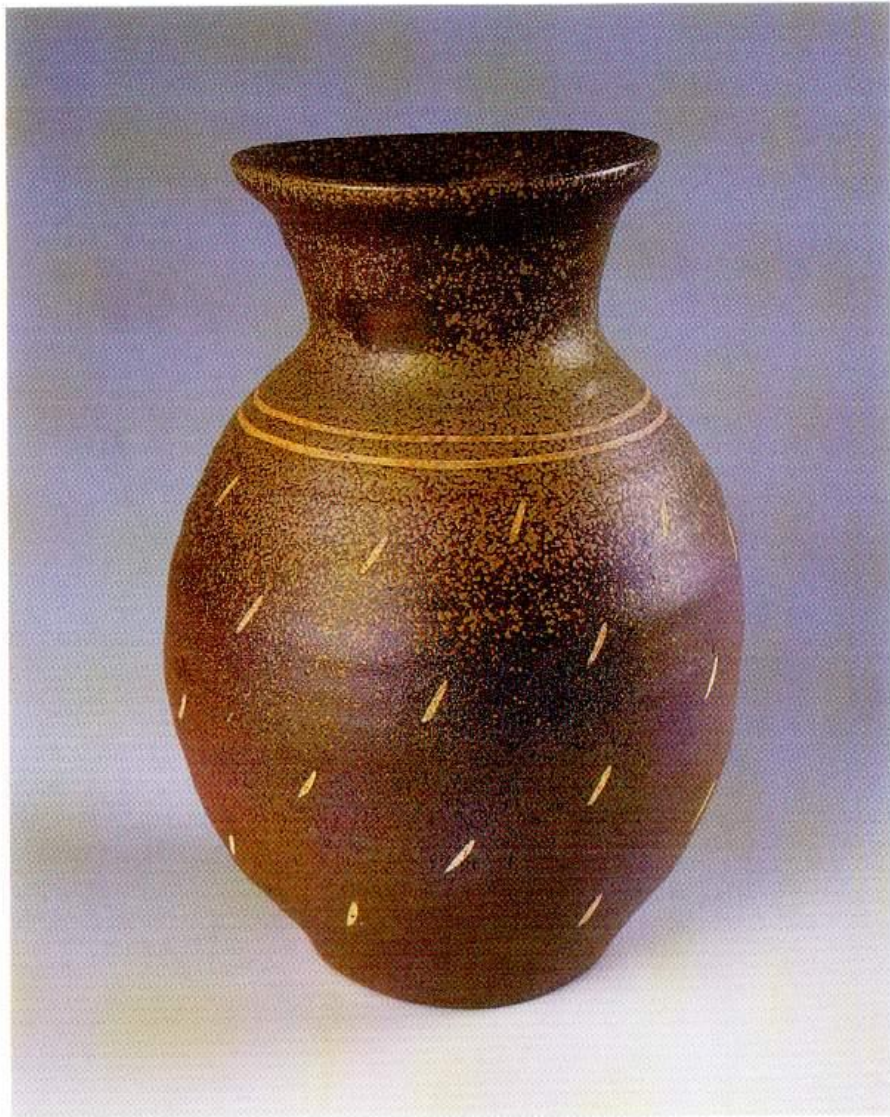
전형적인 제주도 물허벅의 형태를 응용한 형태이다. 기존의 물허벅 형태에서 몸통을 다소 가늘고 길게, 목도 좁고 길게 제작하였고 문양도 몸통의 상단부에 상감칼로 두줄가로선을 그리고 가지런히 4-5줄을 그린 후 화장토를 바르고 굽어내어 상감하였다.



180 × 180 × 275

[시작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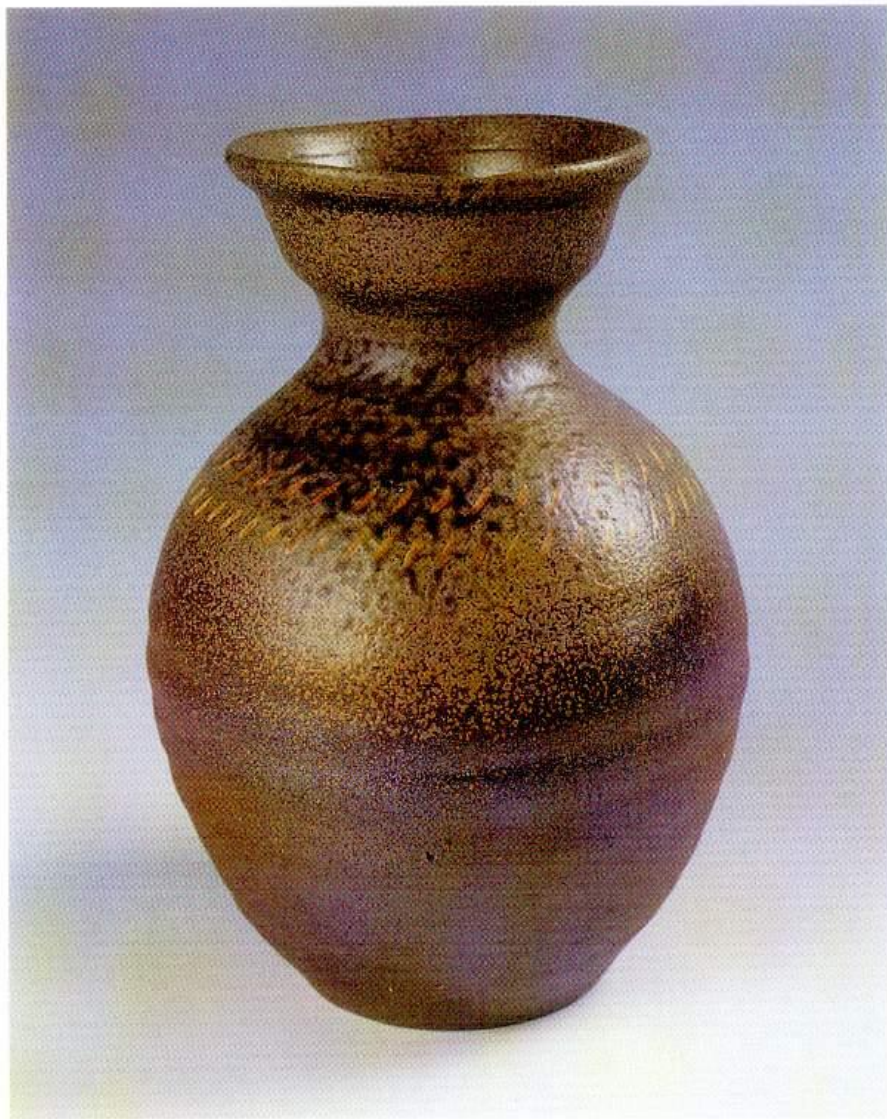
대바가지 허벅의 형태에서 응용하였다. 다소 왜소해 보이는 몸통에 비하여 목은 크고 넓게 만들었고 전을 정돈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마무리 하였다. 문양은 몸통의 상단부에 두줄 가로선을 그리고 빗살 문양을 산발적으로 그려 상감하였다.



170 × 170 × 235

[시작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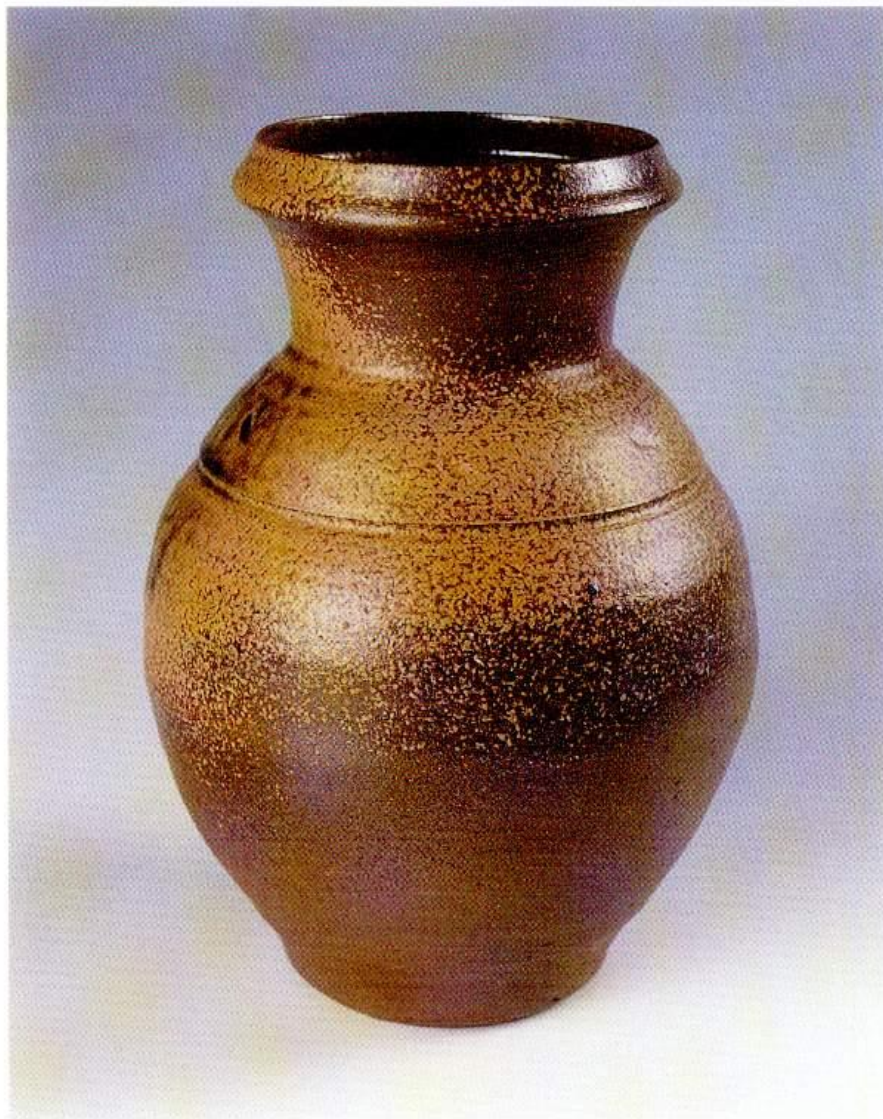
제주도의 술허벅의 형태를 응용하여 제작하여였다. 술허벅의 구연부는 술을 따르기에 용이하도록 전이 한번 꺾여 있는데 이러한 술허벅의 전의 형태를 다소 과장시켜 넓게 밖으로 외반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175 × 175 × 260

[시작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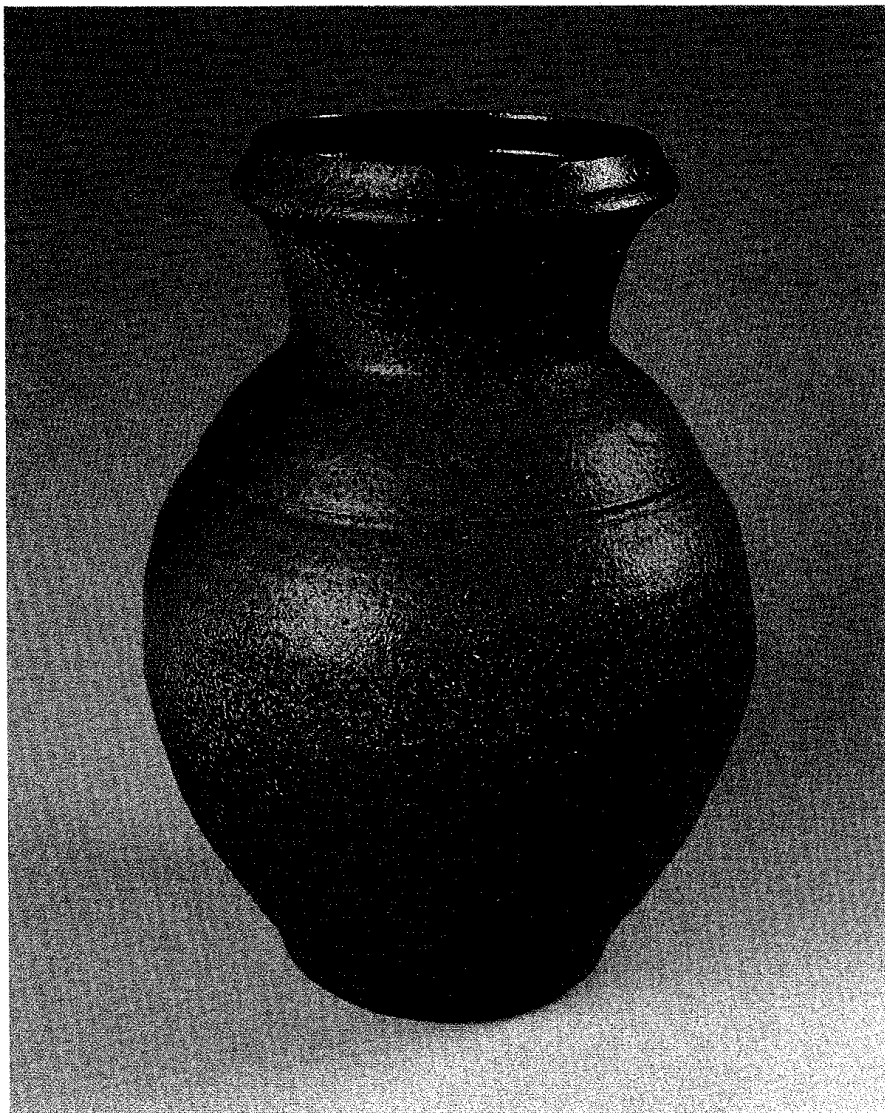
물허벅의 몸통에 다소 큰목을 결합시킨 형태이다. 적당한 크기의 몸통에 비해 목은 약간 길고 크게 제작하였고 표면장식으로 성형 직후 대나무 칼을 가지도 강하게 눌릴 가로선을 그려 넣은 후 빗살 문양을 4-5회 정도 돌아가며 음각하였다.



150 × 150 × 240

[시작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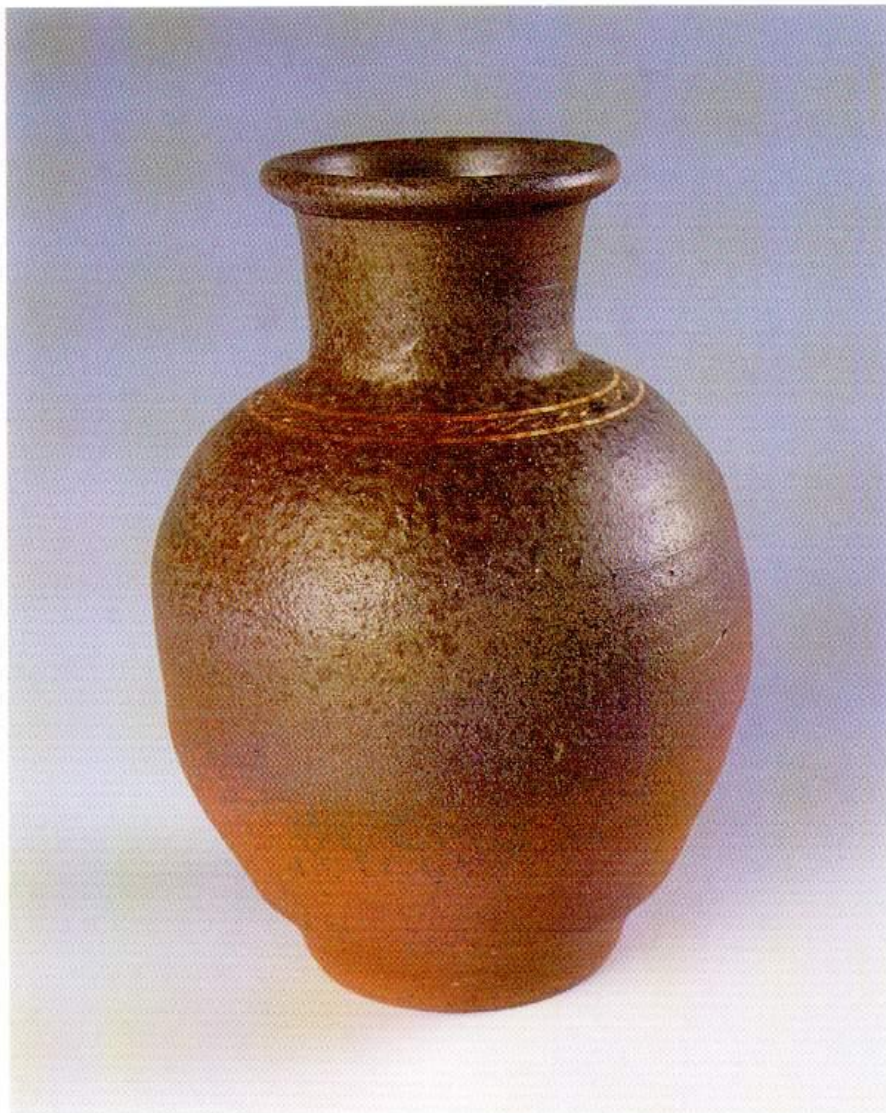
물허벅의 몸통에 다소 큰목을 결합시킨 형태이다. 적당한 크기의 몸통에 비해 목은 약간 길고 크게 제작하였고 표면장식으로 성형 직후 대나무 칼을 가지도 강하게 눌릴 가로선을 그려 넣은 후 빗살 문양을 4-5회 정도 돌아가며 음각하였다.



150 × 150 × 240

[시작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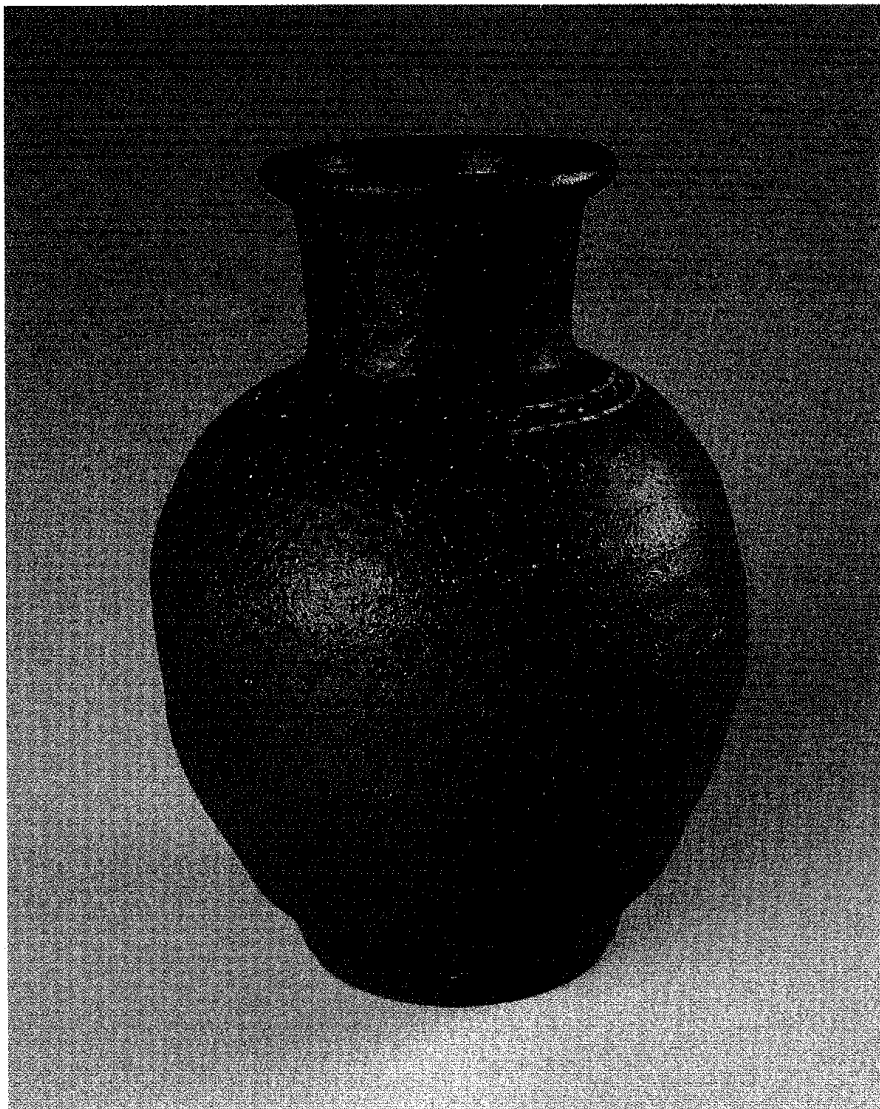
대바지 허벅의 형태에서 응용한 소형 화병이다. 자그마한 몸통에 목도 그리 크지 않게 만들었다. 전의 형태도 전형적인 물허벅의 형태로 말려서 두툼하게 밖으로 외반된 형태로 제작하였다.



160 × 160 × 200

[시작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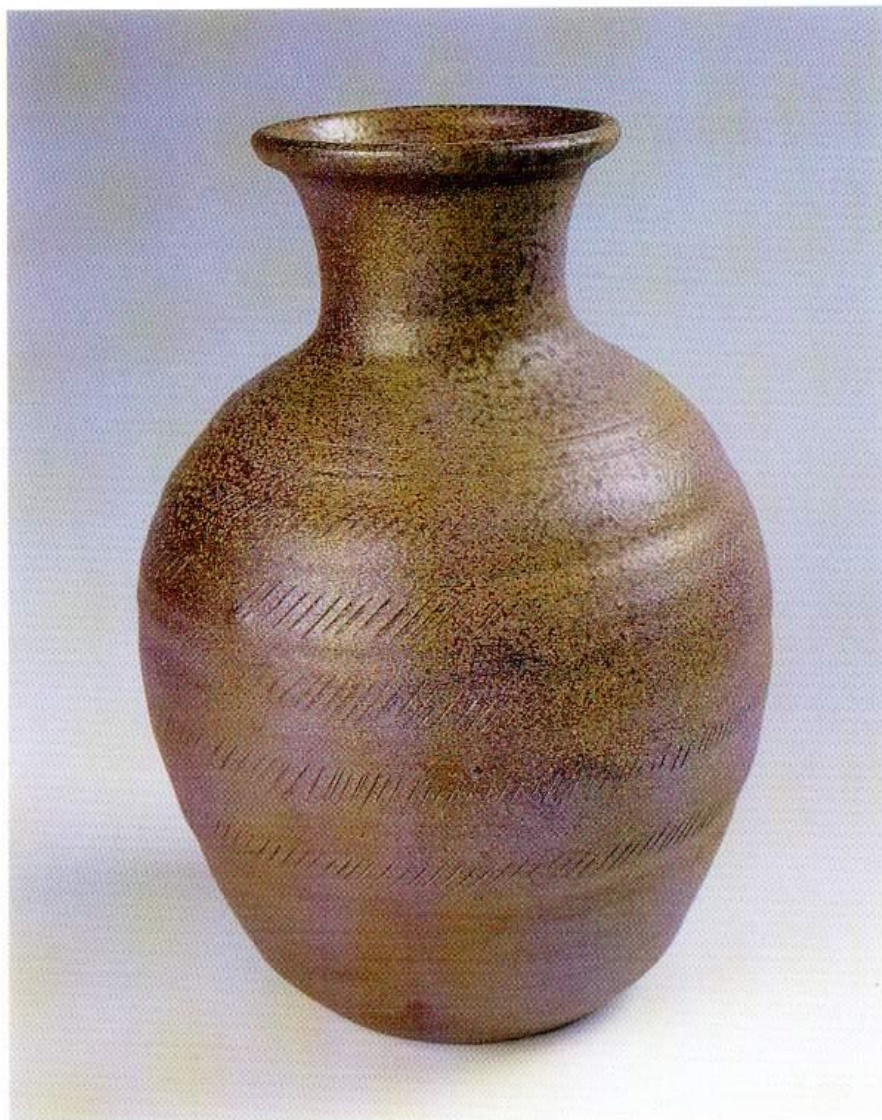
대바지 허벅의 형태에서 응용한 소형 화병이다. 자그마한 몸통에 목도 그리 크지 않게 만들었다. 전의 형태도 전형적인 물허벅의 형태로 말려서 두툼하게 밖으로 외반된 형태로 제작하였다.



160 × 160 × 200

[시작품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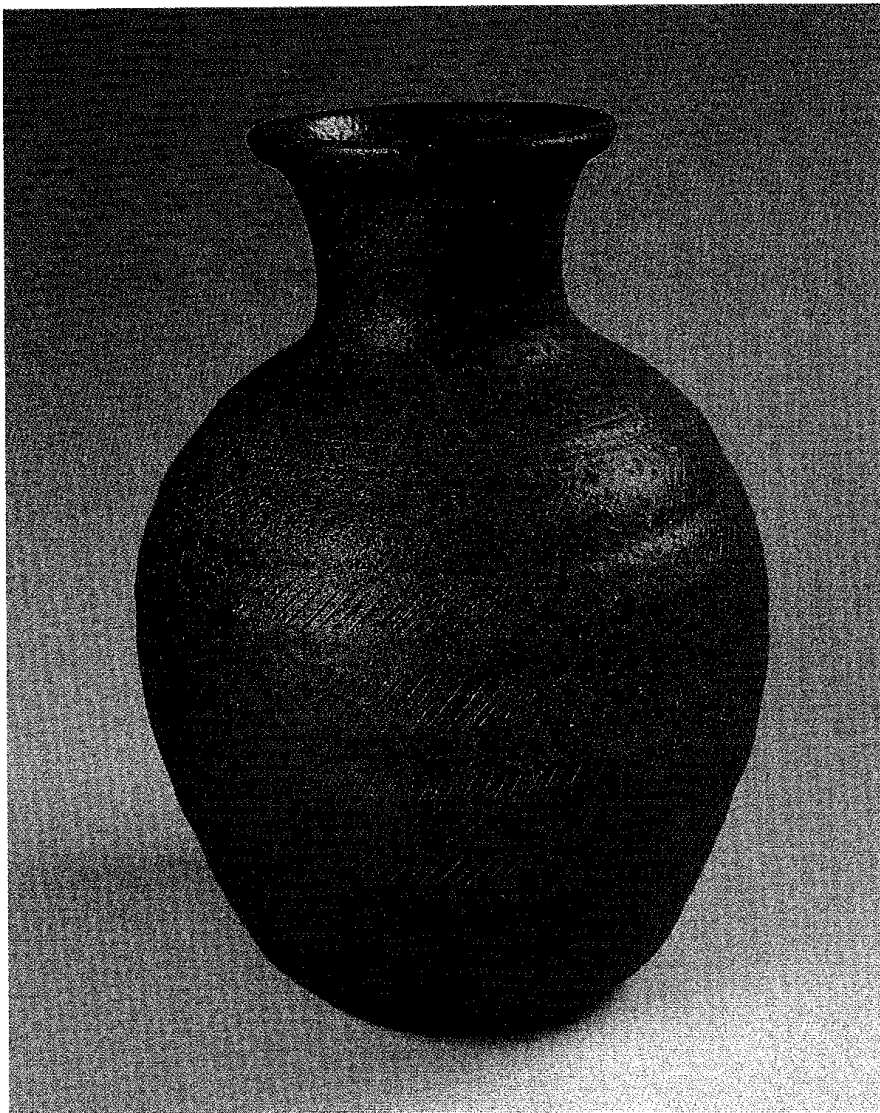
시작품1과 같이 기존의 물허벅 형태를 응용하였다.
굽은 약간 넓고 어깨선을 풍만하게 제작하였고 문양 또한 큰 변화 없이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기물의 표면에 빗줄기가 스치듯이 가볍게 전체적으로 음각 시문하였다.



210 × 210 × 270

[시작품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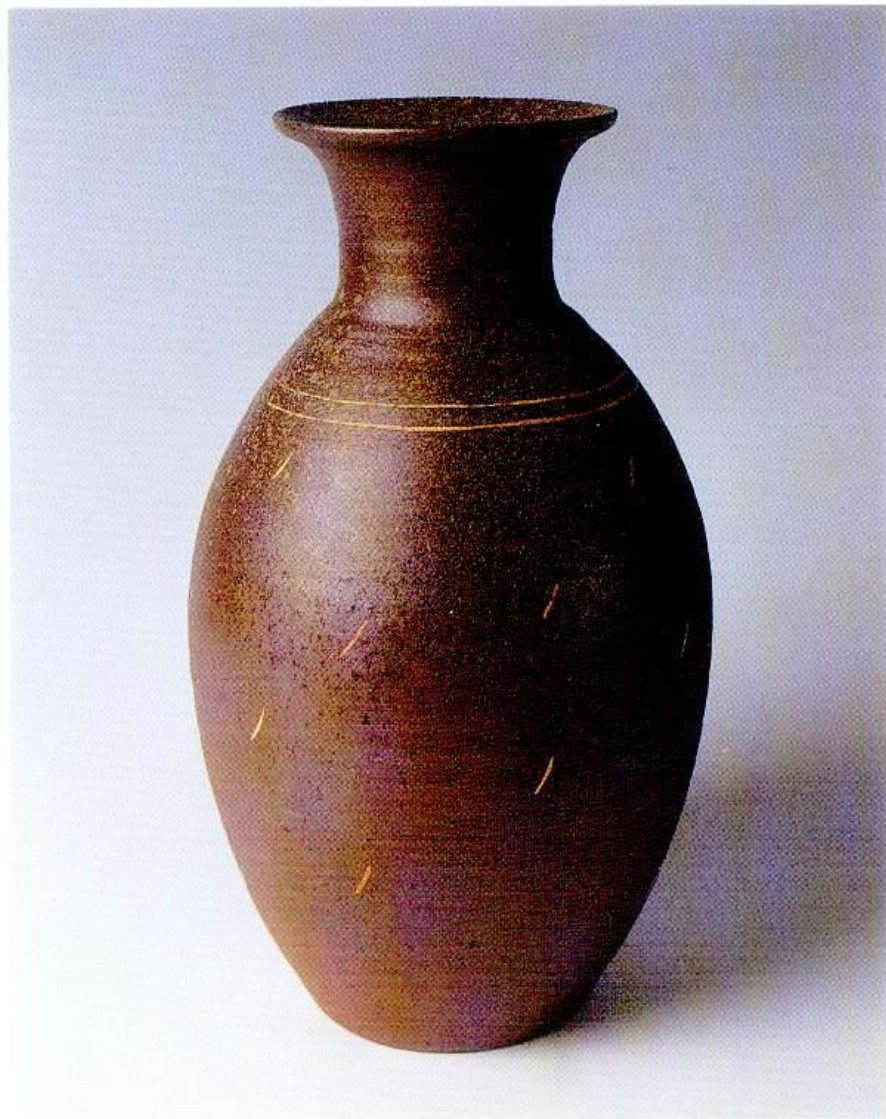
시작품1과 같이 기존의 물허벅 형태를 응용하였다.
굽은 약간 넓고 어깨선을 풍만하게 제작하였고 문양 또한 큰 변화 없이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기물의 표면에 빗줄기가 스치듯이 가볍게 전체적으로 음각 시문하였다.



210 × 210 × 270

[시작품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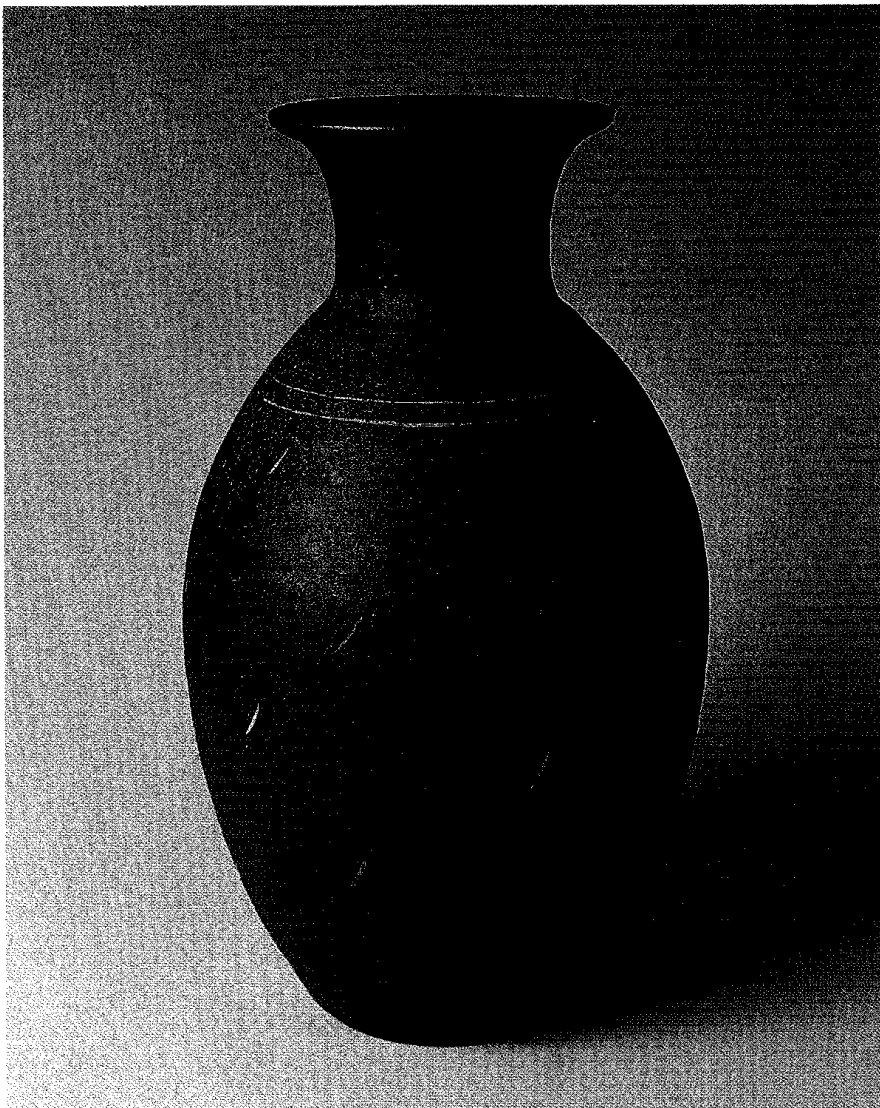
제주도 물허벅의 형태에서 형태에서 목과 몸통 부분을 전체적으로 길게 늘린 형태이다. 가늘어진 몸통의 크기에 비례하여 굽도 좁아지고 목도 가늘고 길게하여 백합 등 줄기가 긴 꽃을 꽃기에 적합한 화병을 만들어 보았다.



150 × 150 × 320

[시작품7]

제주도 물허벅의 형태에서 형태에서 목과 몸통 부분을 전체적으로 길게 늘린 형태이다. 가늘어진 몸통의 크기에 비례하여 굽도 좁아지고 목도 가늘고 길게하여 백합 등 줄기가 긴 꽃을 꽂기에 적합한 화병을 만들어 보았다.



150 × 150 × 320

[시작품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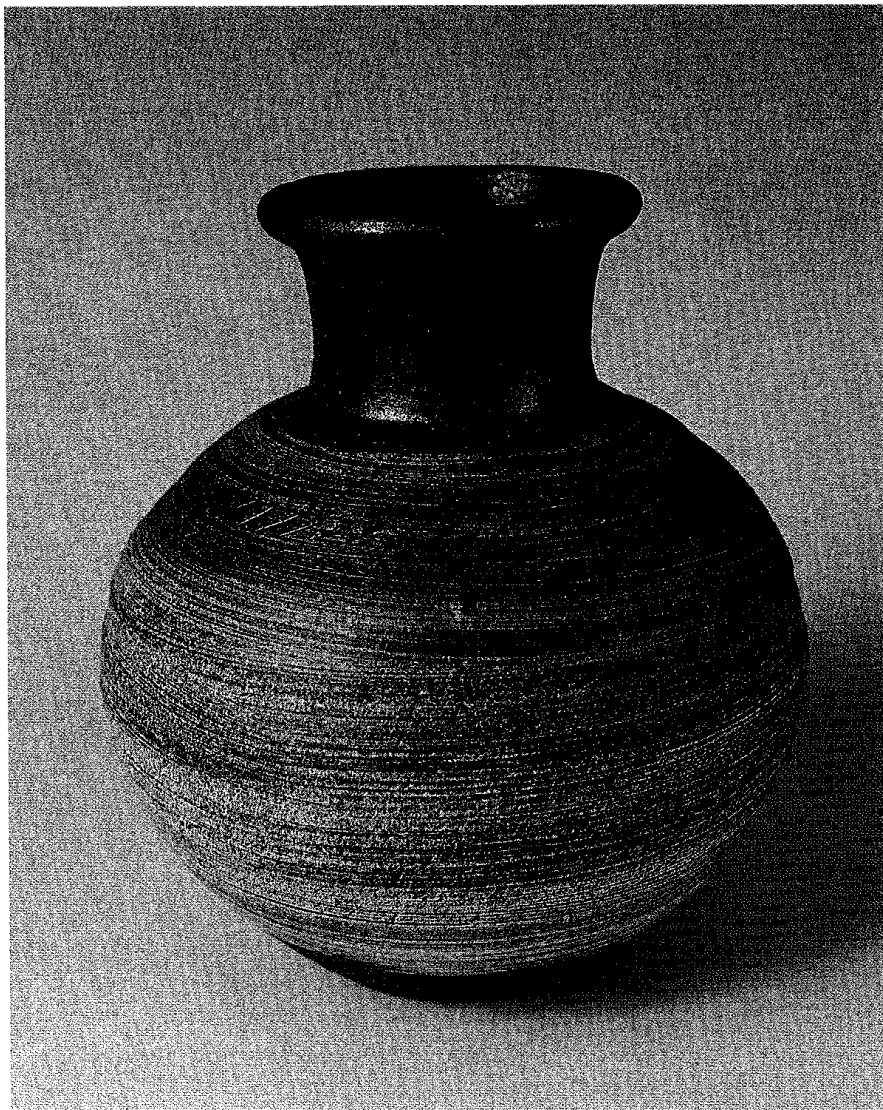
물허벅의 형태에서 몸통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목을 크고 길게 과장시켜 제작한 형태이다. 성형시 화장토를 겉에 바르고 손을 안으로 넣어 조금씩 배를 불러가며 흙에 자연스럽게 트임이 가는 질감을 살려 제작하였다.



140 × 140 × 195

[시작품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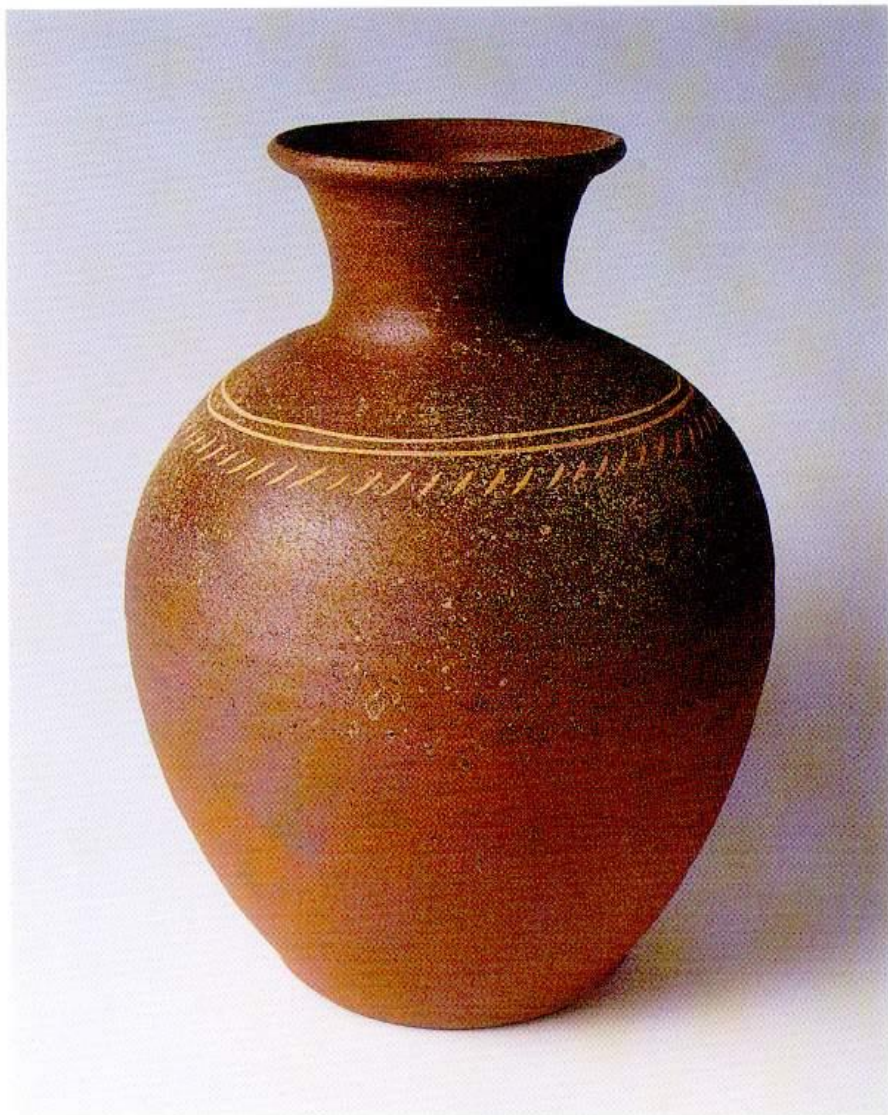
물허벅의 형태에서 몸통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목을 크고 길게 과장시켜 제작한 형태이다. 성형시 화장토를 겉에 바르고 손을 안으로 넣어 조금씩 배를 불려가며 흙에 자연스럽게 트임이 가는 질감을 살려 제작하였다.



140 × 140 × 195

[시작품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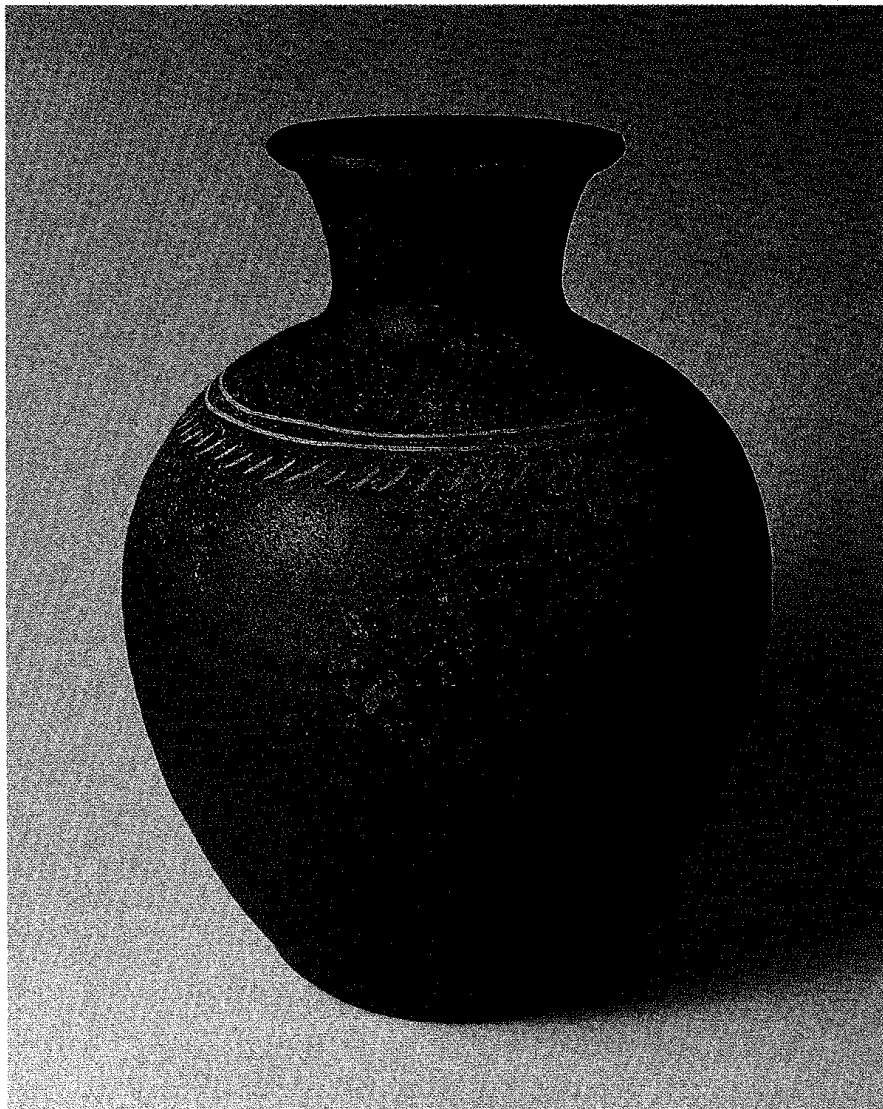
물허벅 고유의 형태에 근접하여 제작해 보았다. 굽은 넓어 안정적이고 몸통은 어깨선에서 풍만하고 목은 좁으며 진은 말려 넓게 외반된 형식이다. 문양은 몸통의 상단부에 두 줄 가로선을 그리고 빗살 무늬를 돌아가며 시문하여 상감하였다.



195 × 195 × 250

[시작품9]

물허벅 고유의 형태에 근접하여 제작해 보았다. 굽은 넓어 안정적이고 몸통은 어깨선에서 풍만하고 목은 좁으며 전은 말려 넓게 외반된 형식이다. 문양은 몸통의 상단부에 두 줄 가로선을 그리고 빗살 무늬를 돌아가며 시문하여 상감하였다.



195 × 195 × 250

결 론

꽃이 주는 아름다움은 인간생활의 정서 함양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서구화된 주거환경과 인구의 증가, 도시화 등의 요인으로 정원이 왜소해 지거나 사라지는 실정에 놓임으로써 정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실외에서 실내로 옮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실내 분위기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게 되고 이와 함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투자가 미의식의 고조와 함께 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화병의 제작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점점 높아져 가는 현대인의 미적 생활양식에 제주도 고유의 용기인 ‘허벅’의 형태를 접목시켜 꽃을 꽃을 수 있는 화병으로서의 실용성과 조형성을 동시에 갖춘 참신하면서도 독특한 화병제작에 역점을 두었다.

시작품의 디자인은 꽃을 꽃는 용기인 만큼 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화병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환경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풍토로 자연환경과 독특한 생활구조에서 파생된 ‘허벅’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용기로써 오랜 생활속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던 여러 생활용기 종류 중에서도 지역적인 상징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현대생활에서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더 이상 서민들의 생활에서 밀려나 골동품화 되어 버린 ‘허벅’에 꽃을 꽃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현대인의 생활속에서 사용함으로써 제주도 섬 고유의 문화를 새롭게 알리고 그 유물로서의 가치를 되살려 제주도 용기 문화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